

# 유공자의 요람 보호병원



글·이 원 구  
광주보호병원장

## 참여와 봉사정신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한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조직에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의 한 평생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에 봉사하고 일부는 사회에 봉사하고 더 일부는 국가에 봉사하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봉사 중에서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봉사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의 건국과 존립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공자들은 계시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멀리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유공자가 무수히 계셨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유명을 달리하신 선현들은 그 영혼을 추모하고 있으며, 현재 생존하여 계시는 분들은 보호병원이 책임지고 건강을 돌보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제 식민지시대에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8.15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이외에도 6.25전쟁으로 인한 부상자, 월남전에 참전했던 상이유공자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질병을 앓게 된 국내공상유공자,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환자, 독재에 항거하여 싸웠던 4.19부상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등 우리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분들로서, 이제 우리가 성직자의 자세로 성심성의껏 보살피고 드려야 한다는 사명 아래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5개 보훈병원에서 이분들을 위해 진료와 재활 치료를 도맡아서 보살피고 드리고 있다.

##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대만이나 미국에서 보훈병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 가장 유명한 병원이 보훈병원이라고 한다.

그야 물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이기때문에 그 어느 병원보다도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좋아 타병원보다 일반인들이 더 선호하는 병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미국의 보훈병원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의사선생님이 몇 분씩 계실 정도라고 하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보훈병원의 위상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이 그 후의 상흔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 세월을 보낸다고 할 때 그 분들의 속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앞으로 우리정부에서도 위상에 맞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보훈병원은 이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치료하지만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는 전쟁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환자가 대다수이며 평균연령이 63세로서 점점 노령화 추세에 있으며, 척추손상, 뇌손상 등 중상이자로서 수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상이처 노령화에 따른 심장질환, 비뇨기계 질환, 각종 암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합병증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가 대부분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여 투병중인 장기요양성 입원환자가 전체 입원환자 중 36%를 차지할 정도로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병원 생활만 하고 있는 유공자가 있으니 이

국가유공자는 전쟁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환자가 대다수이며 평균연령이 63세로서 점점 노령화 추세에 있으며, 척추손상, 뇌손상 등 중상이자로서 수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상이처 노령화에 따른 심장질환, 비뇨기계 질환, 각종 암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합병증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가 대부분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가유공자는 일반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질환과 장애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사뭇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전문치료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 보훈병원의 진료체계 및 서비스

보훈병원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료 및 재활 치료를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서울, 강원, 경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수련병원으로써 800병상을 보유한 병원이나 날로 늘어나는 국가유공자의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2,000병상 규모의 서울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산보훈병원은 수련병원으로 부산시와 경상남도, 제주도에 거주한 국가유공자를, 광주보훈병원은 수련병원으로 광주시와 전남·북,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시와 경북지역, 대전보훈병원은 대전시와 충남·북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민을 관할 구역으로 진료하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거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전국 각 시·군에 172개 민간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경미한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보훈병원 시설규모와 진료체계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훈병원 이용 환자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훈병원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울에 2,0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각 지방보훈병원을 500병상 규모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 확장하고 연차적으로 민간위탁병원 지정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진료서비스 일환으로 오·벽지에 거주하는 원거리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이동 진료반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 투약 및 검사 등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의 투약대기시간 단축을 위

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오전 중 진료를 마치고 최단시간내에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 단순치료 대상자를 위하여 요양병동을 운영 중에 있고, 요가, 문화교실 등 일별, 주간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암질환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담간호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 지원하는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간단한 수술 후 퇴원한 환자와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치료를 요하는 분들에게는 전문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처치와 투약 등을 도와주는 가정간호 제도를 도입,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 유공자의 요람이 되기 위하여

사실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치료하는 병원으로서의 위상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의미가 있다. 그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훈병원이야말로 우리나라 어느 병원보다도 시설이나 의료진, 근무여건 등이 가장 좋은 병원이 됨으로서 누구나 선호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병원과 비교해 볼 때 대만은 2천 병상 규모의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보훈병원의 경우도 각 지역별로 대학과 연계하여 최고의 의료수준을 갖추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어 환자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보훈병원의 경우는 진료대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시설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입원대기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


---

국가 유공자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훈병원이야말로 우리나라 어느 병원보다도 시설이나 의료진, 근무여건 등이 가장 좋은 병원이 됨으로서 누구나 선호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며, 상이처 및 노인성 질환, 척추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등 전문 진료 클리닉 센터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며, 3차 진료기관수준의 첨단 의료장비 부재, 의료수준 미흡 등으로 고난도 진료의 경우 민간 3차 진료병원에 위탁의뢰하여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훈병원 선진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3차병원 수준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여 역량 있고 우수한 의료진이 보훈병원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도입과 기존 OCS(처방전달시스템)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PACS(의료영상 전송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등 디지털병원을 조기 구축하여 병원간의 의료정보시스템 공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선진국 보훈병원과 자매결연을 통한 학술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 상이처 및 노인성질환 치료에 필요한 각종 전문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일류치료 전문병원이 되었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뢰받는 완전한 보훈의료 서비스가 정착되었다고 일반국민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정부예산지원과 보훈병원 내부의 부단한 자구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2003